93 2d set

3 - AUG - 9
Copy ___ 1960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높이자!

《전염》 되는 하품

기중기—지배인 동무, 당신이 하품만 하니 나도 졸 수 밖에 없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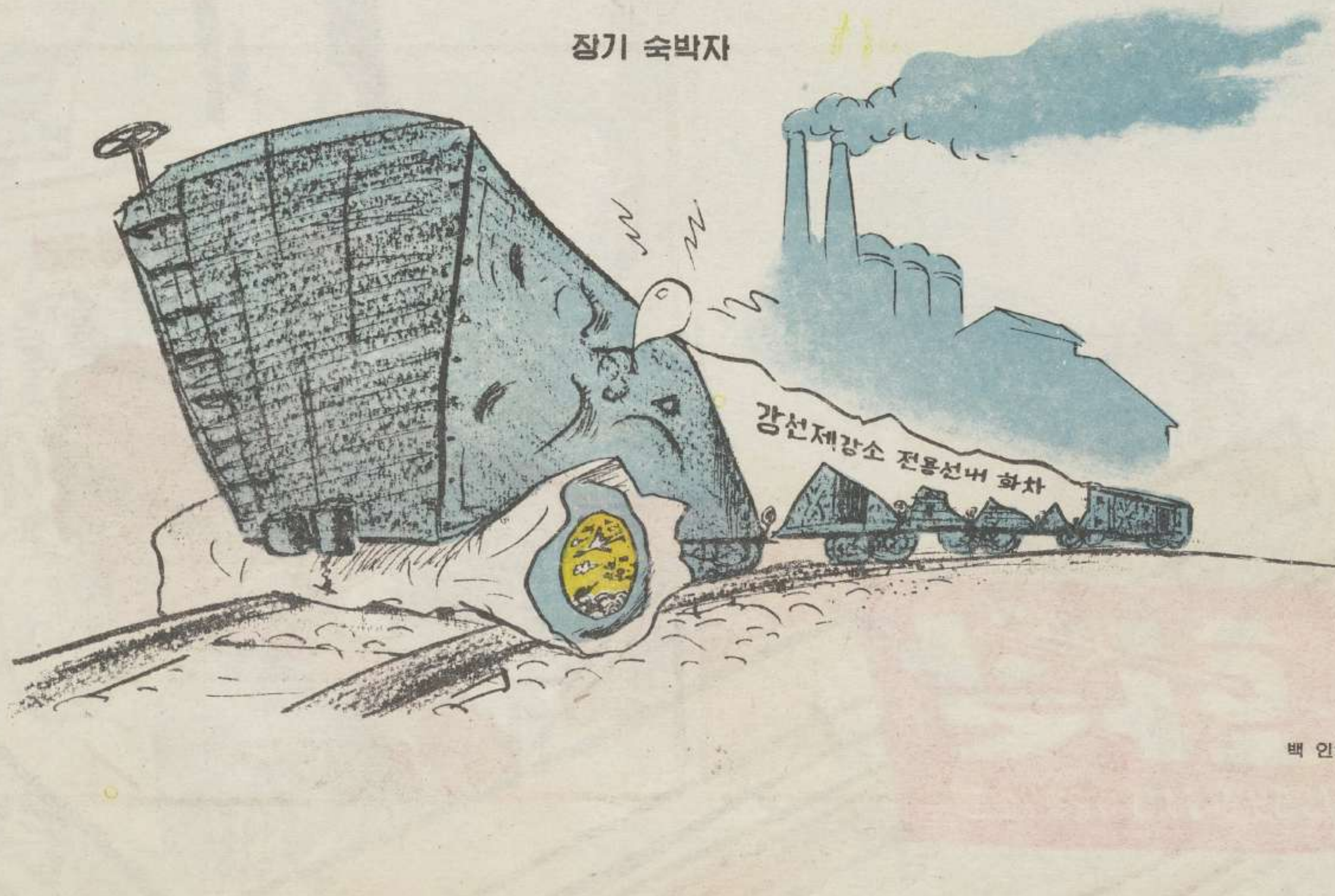
강원 일보사 정 도유 그림

운수 기재의 가동률은 높지만?!

하성 광산 엄병화 그림

하성 광산 운수부 일군'들은 가까운 곳에 띄돌이 있으나 먼곳에서 실어 오고 있다.

장기 숙박자



백 인균 그림

뒤범벅이된 건설

금년 8월15일을 목표로 했던 덕현 광산 선광장 조업 개시는 여러번 연기해 오던 결과 드디여 다섯번만인 지난 11월 15일에야 조업을 시작하는 《영광》을 보게 되였다.

지붕도 덮지 못한 로천 선광장에서 이날 마광기가 목쉰 소리를 내게 되였다.

그러나 마광기는 광석을 먹겠다고 아가리를 벌리고 울기 시작했는데 광석을 운반해 줄 단삭도가 마광기 량식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딱 잡아 뗐다. 그래서 이날 선광장 조업 개시를 보려온 사람들은 조업 개시가 《기동성》 있게 시운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불만족의 가벼운 웃음을 표명하고 돌아가 버렸다.

덕현 광산 건설 공사가 이처럼 진저리 칠 지경으로 늦어 지는 내막에는 무슨 병집이 숨었던가?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자면 《독불장군》에 대한 화제가 튀여 나와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광산 지도부에서 독판을 치던 강 영채의 호통에 의하여 《억지공사》와 《허탕치기 건설》을 조장 시키는데 일정한 작용을 했던 까닭이다.

아직 눈보라 휘몰아치는 금년 정월이였다. 선광장 건설 현장에 당도한 강 영채는 호통을 빼기를

《…이 큰 공사를 〈곤난 극복〉 없이는 건설해 낼 수가 없소. 3,200 립방의 토량 밖에 안되니 18일 동안에 창발성을 발휘해서 굴착을 끝내야 하겠소.》

강 영 채 의 엄명이 떨어졌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예비적 타산을 제기했다.

《건설에서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는 선후차를 구분하고 달라 붙는 것이 능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처럼 추운 겨울에는 갱 굴진에 달라 붙고 봄날에 나가서 선광장 굴착에 력량을 몰밀어 하면 어떨가요? 그렇게하면 8월15일에 가서는 조업 개시를 꼭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선광장 건설과 갱건설을 병행 시키자는 로동자들의 의견은 강 영 채 의 호통에 무시되여 버렸다.

그래서 선광장 굴착은 《억지 공사》로 진척되였다.

엄동 설한에 이룩된 난공사는 봄을 맞이했다. 싸여진 성토는 봄을 맞이하자 와시시 녹아 허물어지고 2만 여 공수의 로력이 여기에서 허탕을 치고 나앉았다.

중산 경쟁 위원회가 이 공사를 일단락 결속 짓다보니 악천 고투 끝에 잃어 버린것은 2만여 공수의 로력 뿐이고 통동갱 굴진은 한뽐도 전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광장 건설이 된다 해도 광석을 보장할 길이 없다.

덕현 광산 건설이 한정 없이 늦어지는 다른 병집은 예견성과 선후차가 없는것 뿐만 아니라 절약을 잊어 먹는 데서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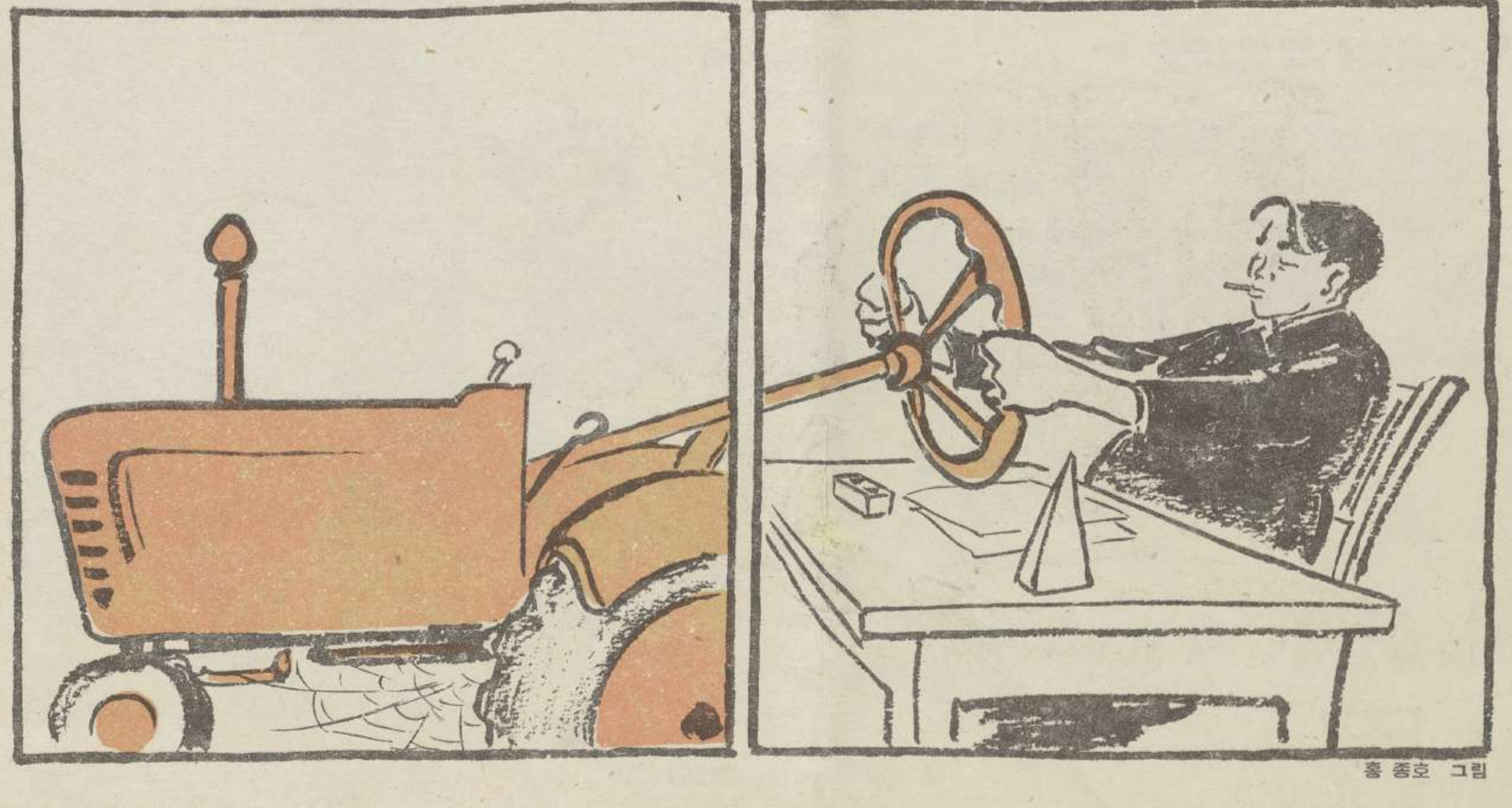
엄무부 일'군들은 백마역과 신의주역에서 최신 기계들과 건설 기자재를 운반해야 할 휘발유를 잘라서 300메터 거리 밖에 안되는 구내에서 골재 운반을 하는데 자동차를 총 동원 시켜 1만 5천키로그람의 휘발유를 몽땅 써버리다 보니 또 건설 기자재 수송에 걸려서 건설은 속수 무책에 빠졌다.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다가 나면 건설은 어느 세월에 끝내겠는지 막막할 뿐이다.

서 득창

책상 운전수

적지 않은 농기계 임경소 들에서는 기능을 소유한 운전수들을 작업에서 유리시켜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저하 시키고 있다.



홍 종호 그림

주먹치기 사업 방법의 후과

11월 13일이였다. 봉산군 문현 농업 협동 조합 사무실에서 관리 위원장이 농산 부위원장과 부기장을 데리고 조합원들에게 김장할 무 배추를 몇 키로그람씩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생산 지도원이 다급히 뛰여 들어 왔다.

《위원장 동무! 군 인민 위원장 동무가 나오셨수다.》

《뭐?》 하고 그들이 사무실에서 뛰여 나왔을 때에는 벌써 군 인민 위원장은 관리 위원회 앞마당의 탈곡 작업을 지도하고 있었다.

《여보! 관리 위원장 동무, 탈곡기 한 대에 웬 사람을 13명이나 부쳤소? 5명을 떼고도 13명이 할 일을 넉근히 해내겠소. 탈곡장이 조합적으로 몇 군데나 되오?》

《일곱 군뎁니다.》

《오칠은 35, 탈곡하는 데서만두 하루 35명씩의 로력이 랑비되고 있는 셈이요. 그러면서 로력이 모자란다는 리유가 서오?》

탈곡장에서 북데기를 부치던 아낙네들이 《군 인민 위원장 동무의 말씀이 지당하지요》 하고 수군거렸다.

군 인민 위원장이 사무실로 들어 가 의자에 앉자 그를 중심으로 관리 일'군들도 둘러 앉았다.

《내가 지금 이 조합으로 오면서 봤는데, 윤촌 앞벌의 물논에서 무릎까지 빠지면서 벼'단을 도로까지 운반하고 있잖소. 그것도 초가을에 배수 대책을 세웠드라면 그렇게 로력을 랑비하면서 힘들여 저나르지 않고도 달구지가 논판까지 쑥쑥 들어 가서 싣는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소! 여기에 투하된 로력 랑비만 해도 수십 공수가 될터이니 조합의 일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잖소! 관리 위원장 어떠오?》

이 조합 관리 일'군들은 조합 사업의 중심 고리를 잡지 못하고 로력을 분산시킨 데서 지난 11월 17일 현재로 가을갈이는 불과 8.2%, 탈곡은 19%로 락후한 형편에 있다.

군 인민 위원장 동무의 말에 관리 일'군들은 주먹치기 사업 방법의 후과를 느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피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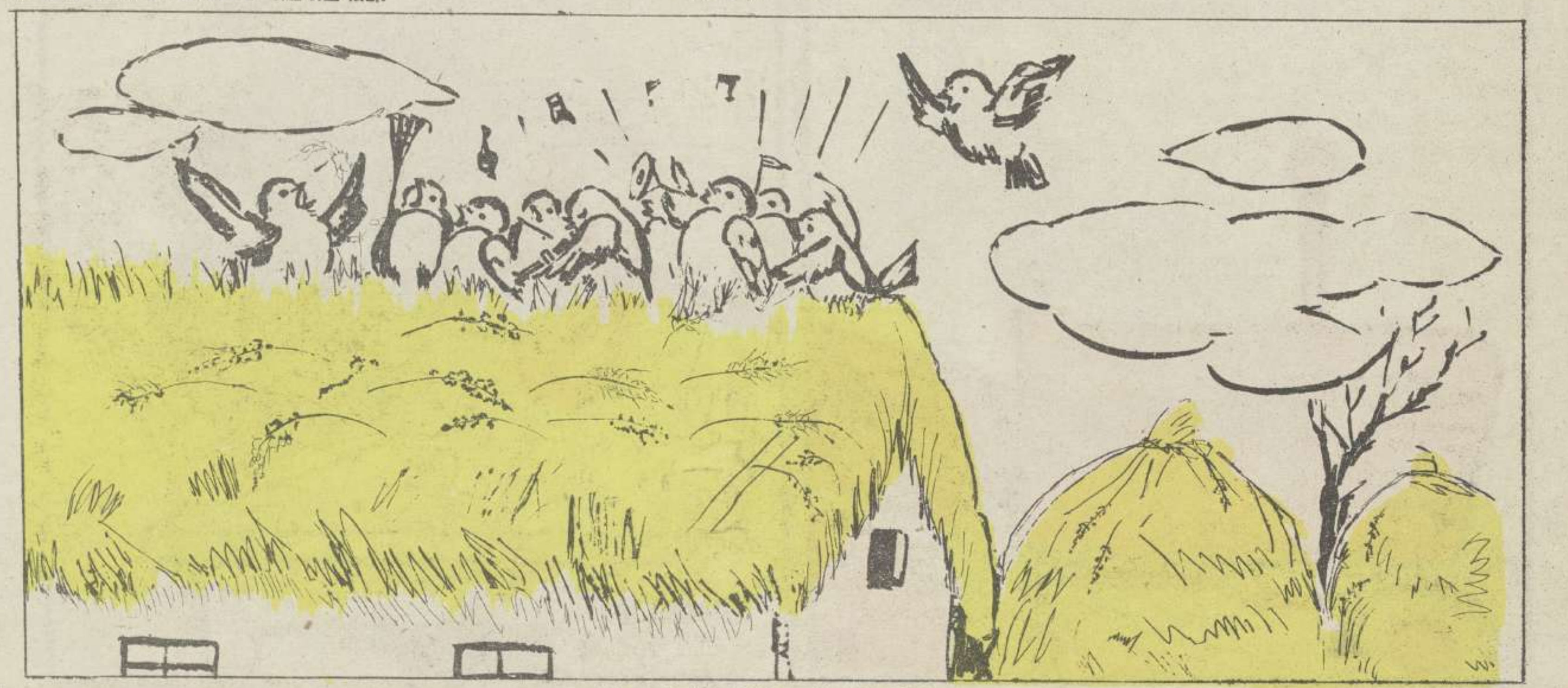
일부 농촌 녀성들 속에서는 자기 일에 안착되지 못하고 도시에로 진출하려고 들떠 있는 경향들을 볼수 있다

들뜬 처녀

허 능택 그림

황해 남도 벽성군 서원리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탈곡을 거칠게 한데서 56톤의 알곡을 허실하고 있다.

새들의 수확



새—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집웅 위에도 풍년이 왔네

허 능택 그림

새 환경에 적응하게 인민 위원회 사업을 개선 강화 하자!

군 위원장은 무엇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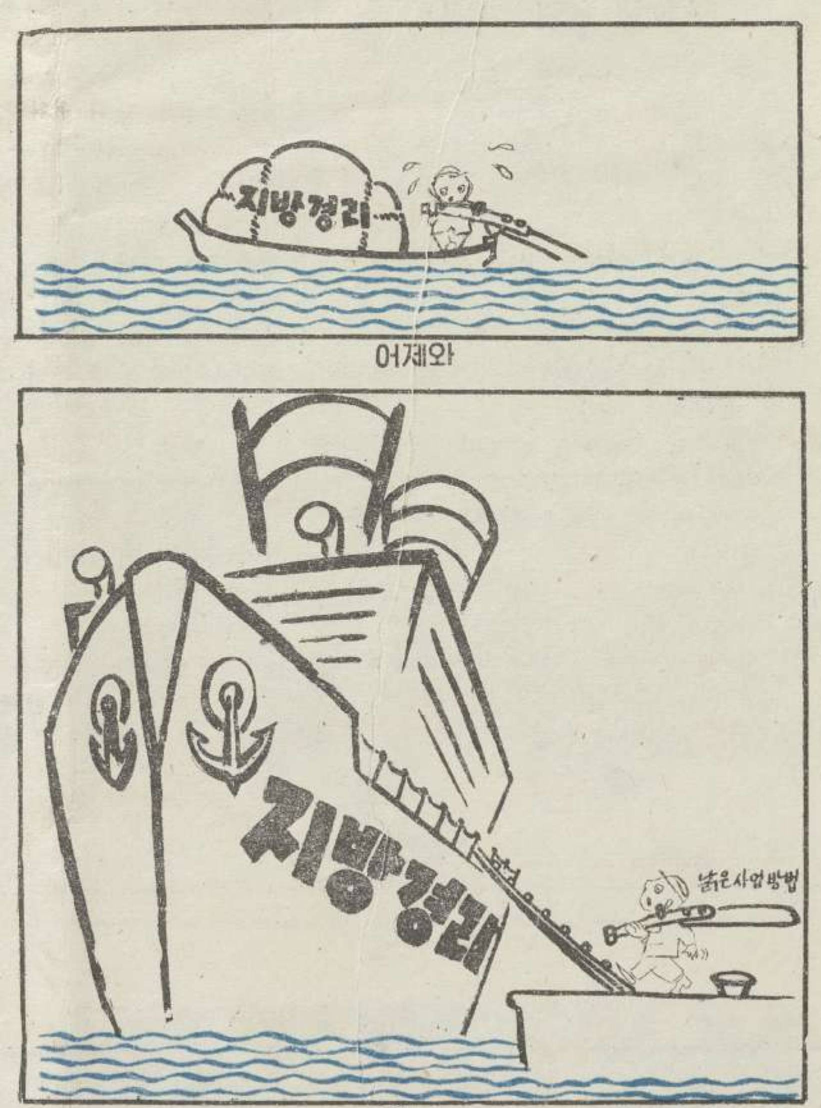
—수매 사업에 대한 의견은 상업부에 제기 하시요

→종합 공장 문제는 지방 산업부에 제기 하여 해결하시요

—내 사업에 대한 의견이라! 어느 부서에서 해결 한다…?

최 영근 그림

낡은 지도 방법은 새 환경에 적용 되지 않는다



어제와

오늘

최 영근 그림

세상 물계 모르는 계획

홍 종호 그림

일부 지방 계획 위원회들은 자체 실정과 대중의 지혜를 참작함이 없이 탁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원 일보사 정 도유 그림

—위원장 동무! 모두 졸고 있습니다
위원장—래일 회의에서 졸지 말데 대한 문제를 토의 합시다

《출장중》

리 동필

촌극 (2경)

등장 인물

경수 } 같은 직장에 있는 자재 인수원
법식
순자

곳— 공장 가까이 있는 국영 려관

막이 오르면 4호실에서 경수와 법식이 가 트럼프를 친다.

경수 (손에든 트럼프를 만지작 거리다가) —에이 모르겠다 졌네 졌어. (가방에서 편포짜박지와 술병을 꺼낸다.)

법식—자네 미리 질 준비를 했구먼 그래.

경수—사실은 어제 저녁에 할려드랬는데 호상 개체 위생 검열하구 열두시가 넘어서 못하구 둬 두었드랬어.

법식—이젠 려관들에서두 위생 사업이 대단해!

경수—말두 말게, 자네두 잘못하다간 톡톡히 망신당해!

△ 이때 순자 등장

순자—아니 그게 뭐예요?

법식—출장중인데 어때요 뭐…

순자—미안하지만 손 좀 뵈여 주세요.

법식—손은 왜?

경수—또 걸렸군.

법식—그래요?? 나야 언제나 문제 없지.

순자—됐어요, 발 좀 봅시다.

법식—나야 방에 들어 오자마자 양말을 갈아 신었으니! 자! 이만하면 어떻소!

순자—됐어요, 그런데 벗어 놓은 양말은 어떻겠나요?

법식—왜 그러시유, 좀 빨아 주실려우?

순자—어디요?

법식—가방에!

순자—(법식의 가방을 당겨 본다.) 아이구 이게…(한짝 한짝 꺼내 놓는다. 모두 다 열짝) 이건 출장 가방이 아니라 휴대용 오물통이군요. (파자 편포 부스러기도 꺼낸다.)

경수—출장중인데 그럴 수 있지요 뭘!

순자—검열원에게 걸리면 우리 직장 망신 당하겠수다. 제가 좀 방조해 드려야 겠어요. (퇴장)

경수 (퇴장한 순자를 바라보며) 녀자는 됐단 말이야, 사람이 쓸만 하거든! 자넨 순자 동무 아니면 영락없이 결렸단 말이야…

(순자 만화를 그려 가지고 등장. 만화에는 술마시는 두 분과 안주로서는 냄새나는 양말짝이다.)

법식 } 이게 뭐야?
경수 (만화를 향해 쳐다 본다.)

순자—법식 동무와 경수 동무지요 뭐.

△ 이때 출장중인 손님 2~3명이 등장

경수—거 뭘 그러우, 손님들두 오셨는데

순자—(붓을 들고) 손님들 만화 제목은 《출장중》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손님들—좋수다!

△ 법식과 경수 어쩔 줄 모른다.

언행 불일치

송 시엽 그림

리발기가 적당 했다

조 명식 그림

—흥! 날 보고 문화 수준이 낮다고?

조 명식 그림

경제림을 조성하자!

원 광수 그림

도적놈의 물레

남조선의 공장 수는 일제시인 1943년에 비하여 56%로 감소되였으며 특히 제조 공업 부문에서 1958년에 와서 1955년에 비하여 36%로 파산 몰락되였다.

허 능택 그림

사주쟁이 무당모엿!

신[illegible]순

얼마전에 리 승만 도배들은 남조선의 사주쟁이, 점쟁이, 무당, 복술, 풍수 등 약 5천여 명을 망라한 어용 단체를 만들어 내였다.

서울시 중구 저동에 중앙 본부 간판을 빼젓이 달아 등록된 회원들로부터 매달 꾀박꾀박 회비를 징수하는 한편 금후 《회원 자격증》이 없는 뜨내기 점쟁이는 아예 해 먹지 못하도록 통제까지 하기로 되여 있다.

인공 위성이 머리 우에 떠 돌고 달나라 려행이 머지 않은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이러한 미신업자 단체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남조선 사회가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가소로운 일이다.

이날 결성식에 자유당 선전부에서 나왔다는 자가 정부 방침을 강조하고 금후 행동 방향을 설명하였다.

《에 강령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요는 일반 국민들을 계몽하여 당국 시책에 협력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 놓고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강조하였다.

첫째, 점을 치되 일반 국민들이 미국 사람이나 《대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품지 말고 어디까지나 국책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점괘를 만들어 낼 것.

둘째, 누구든지 자유당에 들어 와야만 대통운이 티이고 야당원은 거기에서 탈당을 해야 운수가 대길하겠다고 력설할 것.

세째, 앞으로 실시되는 정 부통령 선거에는 반드시 리 승만 대통령이 재선되도록 찬성 투표를 해야 모든 재앙과 액운을 면할 수 있다는 것.

네째로 항상 민심 동향을 잘 살피되 만약 시 불온 사상을 가진 자를 발견 했을 시는 즉시즉시 경찰에 보고할 것 등등이다.

이것으로서 리 승만 도배들이 이러한 미신 단체를 만들어 낸 의도와 목적을 뚜렷이 알 수 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명동 거리에 《신명당》이란 간판을 걸고서 내무부 장관의 《추천장》까지 액틀에 끼여 놓고 사람을 낚고 있는 사주쟁이 령감이 일어 선다.

《점괘로서 자유당에 들라고 하는 거나 리 대통령에게 찬성 투표하라는 건 좀 곤난한데요? 나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당국의 지시를 받고 그따우 점을 치다가 이렇게 허리까지 병신이 됐쇠다.》 하고 지난날 혼쌀이 나던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그는 당국의 지시를 받고 점을 치는데 하루는 갑자 을축을 올려 꼽고 하다가는 《하아 묘한 점괘로군! 《입자 좋의》면 《만사형통》이라 자유당에 들어서 그 뜻을 쫓는다면 만사가 뜻대로 되리라》 그리구 또 산통을 흔들어 서너번 쏟아 보고는 《향여 일표》면 《가이면액》이라 여당 즉 자유당을 지지해서 찬성 투표를 한다면 가히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점을 쳤더니 점치러 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며 《여보! 그 따위 점괘가 어디 있소? 뭐 자유당을 지지하라구?》 하면서 대뜸 강아지 메따치듯 그를 창문 밖 주추돌 아래로 내여 동댕이를 쳤다. 이 바람에 그는 꾀박 석달 열흘을 누워 앓다가 허리 병신까지 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던 좌중은 모두들 박장 대소를 하였다.

《나도 그런 봉변을 당했쇠다.》

이번에는 충청도 어디선가 왔다는 새 무당이 일어 섰다.

그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당국의 비밀 지시를 받고 한 번은 어느 산'골에 가서 굿판을 차려 놓고 신명이 내린 듯이 두 발을 모으고 한참 뛰다가 《어허야 5대조 할아버지 혼령이 성이나고 노하셨구나》 하고 방울을 흔들었더니 그 집 부인이 손을 싹싹 부비며 하는 말 《에그 그래서 삼대 외독자가 일년 남아 누었구먼! 그래 어떡해야 낫겠습니까 신령님》

《대통령 선거에는 이택 문중이 통 털어 더가 성 가진 사람에게 지지 투표를 해야만 낫는다》 하고 너두리 조로 지껄여 댔다.

했더니 《뭐이 어째, 리 승만이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됐는데 그 놈을 지지 하라구? 아니 너 뉘 돈을 먹구 그따우 굿을 허니?》 하면서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 오는 바람에 간신히 빠져나와 야밤 도주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자 또한 웃음이 터졌다.

《에 조용들 하쇼! 그 때로 말하면 개별적으로 비밀 지시를 주었지만 지금엔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느니만치 당국으로서도 대책을 취해 줄터니 념려 마오. 경찰도 배치허구 테로두 보내 주구… 사람의 운명 선수와 결혼 화복을 점친다는 사람들이 그까짓 거 하나 못 속여 넘긴단 말요? 어쨌든 당국의 명령 지시대로만 하란 말이요. 알겠소?》

자기네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리 승만 도배들은 파국에 직면한 자기들의 운명을 다소라도 연장해 보려고 이와 같이 미신업자들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고 닥쳐 오는 대통령 선거에 리용하려고 하고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그들 자신이 팔아 먹은 물건들을 《부정 군수품》이라는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다시 략탈 하고 있다.

터무니 없는 략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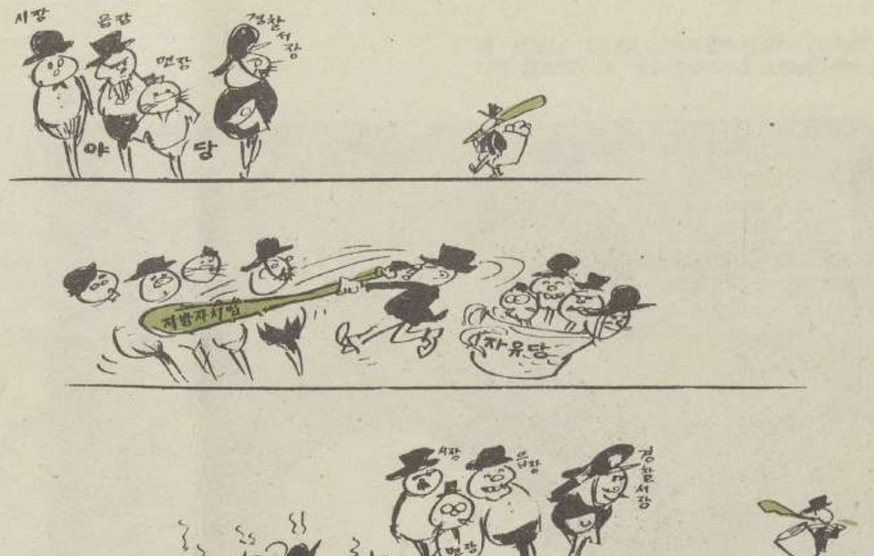
송 시열 그림

주인의 보호를 받는 괴뢰들

리 승만 괴뢰 국회내 233개 의석중 남조선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 하는 근로 인민들의 대표는 한 사람도 없다.

송 용남 그림

바꿔 쳤다



백 인균 그림

노예 흥정'군

조 병조

경무대에서 노예 흥정'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방금 리 승만이와 미국인 홀트와의 사이에 어린 노예 흥정이 벌어진 것이다. (홀트란 자는 서울에 소위 《홀트 해외 양자회》란 간판을 버젓이 걸어 놓고 남조선 고아들을 노예주들에게 팔아 넘기는 중매'군이다.)

리 승만의 턱 밑에는 요사스러운 그의 애첩 애리스도 독살스럽게 앉아 있다.

《사회 보건부 장관》, 《외무부 차관》 등 괴뢰 정부 《장관》, 《차관》 나부래기들도 한몫 끼고…

《사회 보건 장관》이 펼쳐 놓은 문서책을 뚫어지게 들어다 보면서 연신 주어 섬긴다.

《…서울 양자 주선 봉사회에 120명, 부산 성모 보육원에 150명, 기독교 아동 복리회 서울 지부에 100명, 대전 애생원에 150명, 서울 홍제 보육원에 100명이 있는 것으로 아뢰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대체로 다섯살 여섯살 먹은 것들이 옵나이다…》

《그러면 그것이 모두 몇 놈이나 되는가?》

《6백 20명이 옵나이다.》

《적습네다. 적습네다. 존경하는 리 대통령! 그래도 한 배에 걷어 실을만한 수'자는 돼야 할게 아닙네까!》

《이 망할 것아! 그래 그동안에 걷어 넣었다는 것이 그 뿐인가? 내가 경들에게 항상하는 말이지만 우리 한국의 거지들을 비록 태평양에 던져 버리는한이 있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다 쫓아 내고 싶단 말이야…》

《오! 사랑하는 나의 승만! 당신의 애리스는 당신의 그 뜻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건부 장관!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드시요. 그렇게 되면 저 거리에서 우글거리는 거지들의 앞날에 광명이 있을 것이요…》

《각하! 죄송하옵나이다. 그러면 두살 세살난 아이들로써 수'자를 더 늘궈 보겠삽나이다!》

《오! 좋습네다. 두살 세살 좋습네다. 존경하는 리 대통령! 두살난 놈이라면 뉴욕시의 암시장에서 보통 월부로 2천 딸라에 팔아 넘길 수 있으니깐요…》

《감사합니다 홀트씨! 보건부 장관! 그러면 모두 몇놈이나 되는가! … 1,154명! …》

이리하여 지난 11월초에 리 승만과 홀트와의 사이에는 또 남반부 고아들을 노예로 명년 6월까지 1,154명이나 미국에 방매하기로 되였다.

매국 역적 리 승만이가 이러한 방법으로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고아들을 미국의 농장주들과 자본가들에게 이미 팔아 넘긴 것만도 2,870 명에 달한다.

우리 공화국 정부가 기아와 빈궁에 신음하는 남반부 실업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헤매는 수십만 류랑 고아들을 공화국의 따뜻한 품안에 받아 들일 데 대하여 수차에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국 배족 행위를 일삼는 리 승만 역도는 이를 거부하고 무의 무탁한 고아들을 미국 상전들에게 팔아 먹기에 계속 날뛰고 있다.

그런데 리 승만은 자기의 죄상을 감추기 위하여 고아들은 소위 《양자》로 미국에 보낸다고 지꺼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미국에 팔려간 남조선 고아들의 참담한 생활이 잘 말해준다. 례컨대 《양자》라는 명색밑에 과리노라는 미국놈에게 끌려서 미국의 노예주들에게 팔려간 남조선 고아 리 경수 소년과 부산 성모 보육원에 수용 되였다가 미국에 노예로 팔려간 박 이례나 소녀는 미국 양키들의 간악한 인종 차별과 흡혈귀와 같은 노예 상인들의 채찍질을 받아 가면서 개나 돼지와 같이 팔려 돌아 다니고 있다.

미국의 통신도 미국에 팔려간 남조선 고아들의 암담한 처지는 《절망적》이라고 썼던 것이다.

《풍 작》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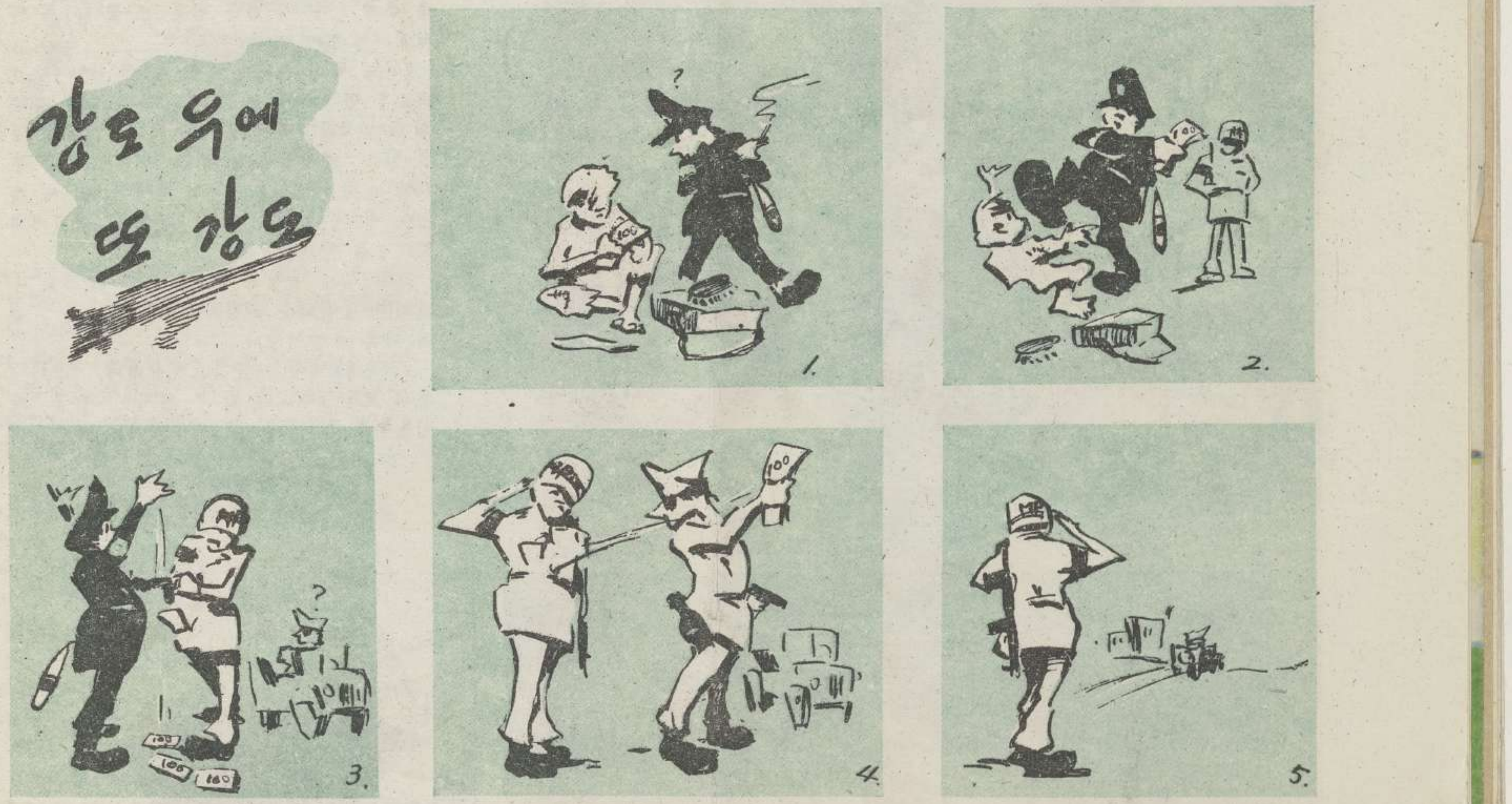
1957년 9월부터 1958년 9월까지의 1년간의 남조선 농가 부채는 885억환에서 1,200억환으로 즉 135%로 증가되였다.

허 능택 그림

《채권 홍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1958년 한해 동안에 3600여억환에 달하는 《국채》 발행과 은행 차입을 통하여 방대하게 팽창된 재정 지출을 보충하고 있다.

송 시엽 그림



리 종길 그림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언론과 출판에 대한 자유를 박탈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만도 75종의 정기 간행물을 폐간 시켰으며 금년에 들어 와서도 야당 계렬의 대표적 신문인 《경향 신문》을 비롯한 수십종의 정기 간행물을 폐간 시켰다.

발광

송 용남 그림

—원래 이런 글자가 있는 것이 불온 하단 말야, 폐간이다 폐간!

리 승만 도당은 셋 이상 모여 앉기만 하여도 그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체포 구금 하고 있다.

불도 쪼일 수 없다

송 용남 그림

곡창 지대가 기아 지대로

백 인규 그림

리 승만의 쌀장사

리 철희

《주한 미국 대사》 맥코노이와 《주한 미 경제 협조 처장》 호이어가 또 경무대에 나타났다.

《웰 컴!! 전화를 받고 기다렸습네다.》

리 승만이가 다리를 후둘거리면서 술 취한 사람의 잠꼬대 같이 혀 굳은 영어로 비린 소리를 내며 문'가로 마중 나갔으나 해골의 눈 구멍같이 검은 안경이 퀭한 맥코노이는 물 건너가는 개 대가리처럼 고개를 추켜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 안락 의자에 털썩 앉았다. 호이어는 며송연을 문채 동물원에 갇힌 승냥이 처럼 뚜벅뚜벅 방안 한구석으로부터 한구석으로 왔다 갔다만 하였다.

《요즘 한국 생활이 자미 어떠하신지요》

리 승만이가 두 손을 맞 비비며 상전들의 눈치를 살폈건만 맥코노이와 호이어는 리 승만의 눈물이 괴죄죄한 벨건 눈'가를 경멸의 눈초리로 잠시 주시했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세계의 쓰레기〉통이라는 한국에 무슨 재미가 있단 말이오. 한국 백성놈들은 모두 반미 사상만 들어 차서 무시무시하지… 국무성에서는 날마다 추궁만 오고… 나 매우 불쾌 합네다.》

맥코노이가 어깨를 으쓱하고 두 팔을 벌려 보이는데 이번에는 호이어가 매부리 코를 추켜 들고 개 벼룩 씹듯 주둥아리를 떡떡거리면서 말했다.

《나도 매우 불쾌하고 또 불쾌 합네다. 보시오! 한국 항구에 체화된 우리 미국 상품은 20만 5천 7백여 톤이란 최고 기록을 내고 있소. 태평양을 건너 온 상품이 한국 문턱에 걸리고 있소. 대단히 자미 없소. 이 책임… 이 책임 바로 당신 리 승만 박사에게 있다는걸 압네까?》

그는 점차 음성을 높이드니 두 주먹을 부르쥐며 발작하듯 외쳤다. 단번에 용건이 튕겨 나온 모양이였다.

《오우! 대단히 유감스럽삽네다. 그러나 나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지요. 한국 백성놈들은 본래 게으르고 우매하여 가난한데다가 미국의 원조로 더욱… 아니 이번에 수재까지 입어 더욱 가난해진고로 구매력이 없는 까닭인 줄 압네다. 태풍 피해만 해도 1천 3백여 억환이나 되고 리재민이 백만을 넘습네다.》

리 승만이가 호물딱거리며 느릿느릿 대꾸하자

《그만두시오! 리재민 백만이나 2백만되여도 우리나 당신에게 무슨 상관 있소?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까닭입네다.》 맥코노이의 외침!

《그렇습지요. 그런데 절량 농민이 벌써 3백만… 실업자가 6백 80만… 온 백성놈들이 모두 거지들입네다. 그러니 미국 상품 살 수 없었을 것입네다.》

《로인! 그래도 미국 상품 사야합네다. 당신들에겐 아직 수출할 것이 있습네다.》

《많이많이 있습네다. 첫째로 백미… 오우! 백미! 그건 좋은 수출품입네다.》

호이어가 간사한 삵의 웃음을 띠우며 말했다.

《하하하! 리 승만! 쌀 미끼가 있어야 한일 회담에서도 롱간을 부릴 수 있소. 또

쌀을 많이많이 수출하면 한국 항구에 수 만톤 체화된 미국 잉여 잡곡 많이많이 팔릴 수 있습네다.》

리 승만은 올빼미처럼 눈을 껌벅껌벅 하면서 한숨을 쉬였다.

《하하아! 알았소이다. 80 고령에도 미국 선생에게서 배워야 하겠소이다. 자 그건 문제없이 시행하겠으니 축배나 듭시다.》

리 승만은 또 다리를 후둘거리면서 샴판주를 집어 들었다.

며칠후 10월 19일 괴뢰 상공부 장관은 류큐대표들에게 쌀을 팔겠다고 초청했으며 쌀장사'군들로 조직된 《미곡 수출 협의회》, 《미곡 수출 조합》들이 《지정 수출업자》로 지정되였다.

리 승만의 쌀 장사 계획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경에 헤매이는 리재민과 남조선 형제들은 늙은 주구의 쌀 장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제대 　　　　 대책

허 능택 그림

서울 동화 통신에 의하면 《상이 군인》들 중 류랑 걸식하는 자만도 8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출로가 없다

송 시엽 그림

트루맨의 공동묘지

로 순철

흐루쑈브 수상이 유엔 총회 제 14차 총회에서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에 관한 쏘련 정부의 선언 초안》을 발표한후 아연 실색하고 의기 소침하여진 제국주의자들 중에는 트루맨도 섞여 있다. 그는 그후 한달 남짓한 동안 뉴욕시 교외에 있는 자기 저택에서 한발자욱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

—왜 당신은 그때 흐루쑈브씨를 위하여 배설한 쏘련 대사관의 연회에 참가하지를 않았는가요?

—왜 당신은 일체 외출을 금지하고 계신가요?

—세계를 놀래울 《대 정책》을 연구중이신가요?

조잘대는 신문 기자들의 이 모든 물음에 대하여서도 트루맨은 그저 침묵만 지켰다. 휘영창 넓은 그의 저택에는 음산한 공기가 가득 찼고 이따금 울려 퍼지는 그의 기침 소리만이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줄 뿐이였다. 그 기침은 일찌기 1951년, 조선을 침략한 미군이 인민 군대에게 호되게 얻어 맞은 다음부터 생긴 고질인데 요새 더욱 도져가는 것이였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깊은 심뇌에 빠뜨려 놓았는가?

대대적인 선전과 함께 나타난 《트루맨 략전》이 한권도 팔리지 않은채 고서점 창고에 무데기로 싸여 있기 때문인가? 혹은 지난날 대통령을 해먹던 그 호화로운 자리가 그리워서인가? 아니면 둘도 없는 친우였던 폴레스탈과 덜레스, 그리고 그처럼 조이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맨 만세!》도 채다 부르지 못하고 머나먼 조선 땅에서 개죽엄을 한 수많은 미국 병사들이 그리워서 인가?

물론 이 모든 것이 트루맨에게는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방공호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방공호에 관한 문제》— 이것은 트루맨에게 있어서 (그가 항상 자기 처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그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집정하던 기간에 미국에서 군비를 바짝 확장하고 전쟁 히스테리를 맘껏 고취시켜 놓고 벼슬 자리에서 물러 설때에는 방공호 굴설을 전문으로 하는 《하워드 웨리칸 회사》의 주권을 몽땅 사가지고 백악관에서 나왔던 것이다.

—아니, 당신은 미쳤소? 이 원자 세기에 방공호가 무슨 소용이라고 전 재산을 다 털다 싶이 해서 그런 모험을 하는 거요?

라고 그의 처가 나무랠때 트루맨은— 친애하는 윅토리아, 글쎄 당신은 정치를 모른다니까…. 걱정마오. 앞으로 우리 미국은 방공호로 덮이게 될터이니까 말이요. 마치 그 무에라 할까… 저 공동 묘지의 묘들처럼 말요. 알겠소? 이것은 곧 비즈네스, 돈이란 말요!

하고 호통을 뽑았던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적중하였다.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 받은 아이젠하워는 마치 선배의 돈주머니를 걱정하여 주듯이 계속 전쟁 히스테리를 고취했고 정기적으로 방공 련습도 조직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연회 석상에서 《하워드 웨리칸》식 방공호의 우점을 극구 찬양까지 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워드 웨리칸》 회사는 최근 단 3년간에 그의 고정 자금이 무려 12배로 증가되였고 트루맨의 앞길에는 유쾌한 일만이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쏘련 정부의 선언 초안이, 그것도 뉴욕의 한복판에서 세계를 향하여 발표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제아무리 《견고》하고 온갖 미국식 상활 양식을 다 갖추었다는 《하워드 웨리칸》식 방공호도 견디어 낼 수 없는 대폭탄이였다.

그의 회사의 주권 가격은 단 3일간에 일약 35%나 폭락되였고 《계약을 취소하겠다》 《트루맨 당신이나 그 방공호에 들어가 사시오, 우리는 평화적 공존이 더 마음에 드오》 《당신들을 위한 공동 묘지— 방공호는 수 없이 마련되였다. 어서 들어 오시라! 환영한다.》라는 수 많은 항의문, 전보, 편지가 쇄도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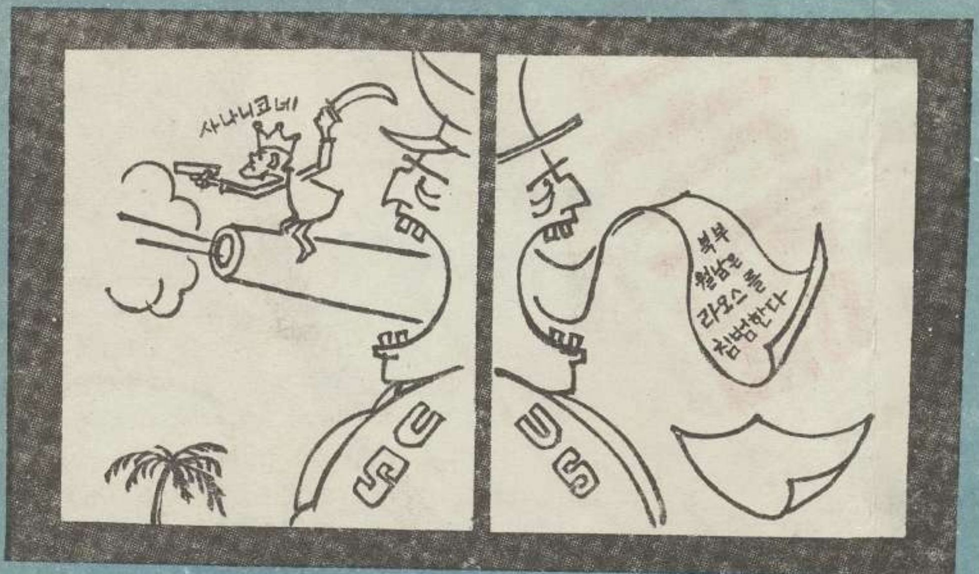
어찌 트루맨이 심한 심뇌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 특히 우리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인 트루맨이여, 미 제국주의자들이여, 당신들을 위한 공동 묘지는 이미 다 마련되여 있다.

배격한다!

송 용남 그림

최 영근 그림



철면피한 《연극》

아이크의 길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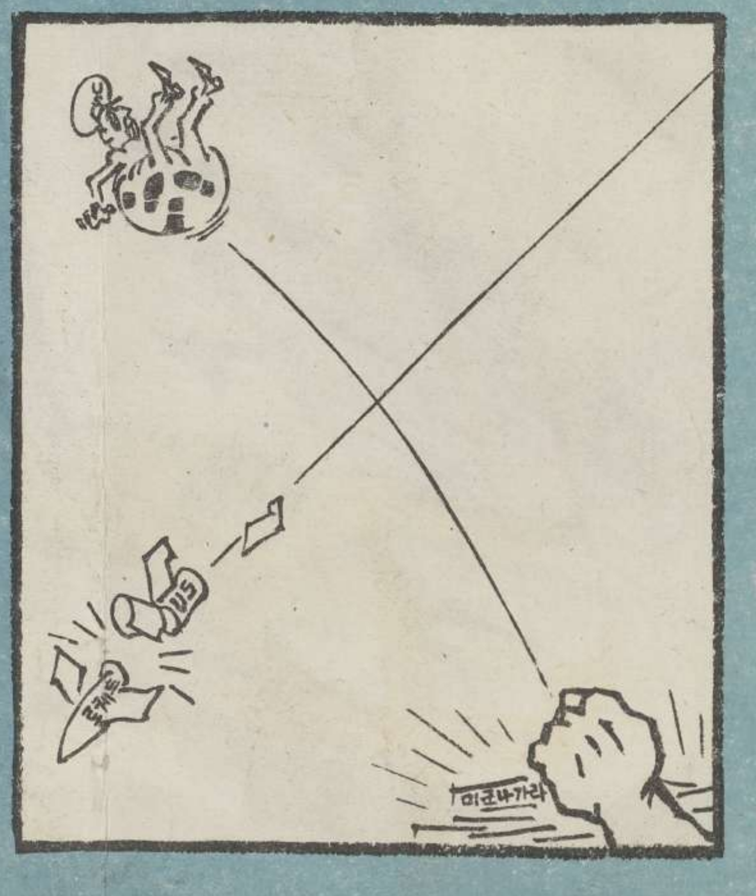
아이젠하워—허터씨, 미국이 우세 하다는 것을 보이게 잘 꿰매시요

머리 없는 아데나우어

아데나우어의 원자 기지화 정책은 온전한 사고력을 가진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떨어지는 위신
높아가는 반미 기세

미국의 《뒤'동산》이라고 불리우던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서 반미 기세가 비등되고 있다.



편집 위원회 | 발행소 국립미술출판사 |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965 | 발행 1959. 12. 11
(값40전)

노도와 같은 기세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간다
리승만
괴뢰정권
백 인균 그림